

2023학년도 1학기 끝말교실 수요특강 1강

진술방식과 효과적인 글쓰기

-박필현(교양대학)



✓글쓰기 접근 과정

- 1)글의 목적과 유형 파악
- 2)예상 독자 파악
- 3)화제 탐색 및 설정
- 4)맥락 찾기-주제 설정(주제문)



자료 수집과 정리

(내용을 균형 있고 깊이 있게 만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

→ 내용 구성+인용

➤글의 성격과 유형 파악

개인적 표현과 감상에 주안점을 둔 자족적 글? 독자를 고려한 사회적 글?

문학적 글? 비문학적 글?

사회적 현상 혹은 문화적 현상을 설명 분석?

책 읽고 평가?(서평)

텍스트의 비평 분석?(비평문)

어떤 현상 혹은 화제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과 논점 전개?(논증문)....

✓ 글의 분류

by 목적

용도

진술(서술) 방식 등

정보전달(설명문, 보고문...), 설득(논설문...), 상호작용, 자아 성찰, 학습 등

실용적인 글
문학적인 글
학술적인 글 등

묘사, 서사, 설명, 논증

➤ 글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진술의 다양한 방법들 활용 → 효과적인 전달

묘사



1. 키 178cm, 흰 피부, 크롭 컷, 쌍꺼풀 없는 눈 등 -정보전달
 2. 후리후리하게 큰 키, 햇빛 한 번 본 적 없는 듯한 흰 피부, 반듯한 이마가 돋보이는 짧은 머리, 시원하게 뻗은 콧날, 크고 담백한 외꺼풀 눈 등
- 상상력 자극, 심미적 즐거움

- 1.그 사람은 눈이 가늘고 길며 피부에 여드름 자국이 있다.
- 2.그 사람은 가늘고 긴 눈에 반달 모양의 눈썹 을 갖고 있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 3.그 사람은 웃음기가 어린 가느다란 눈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 호기심 많은 소년 같았다.



✓ **묘사** : 그리고 베끼는 것, 어떤 대상을 언어로 그려 보이는 기술 양식,
정보나 지식 전달이 목적-객관적 묘사 VS 인상의 전달이 목적-주관적 묘사

-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남북 방향 물길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삼청동, 가회동, 계동, 원서동 등을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고 하여 북촌이라고 불려왔다. 이곳은 별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도성의 중심에 놓여 있어 주거지로서의 조건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주거지로 자리 잡아 왔으며 궁궐이 가까이 있어 관리들과 그에 딸린 하인들이 살던 집들이 이곳에 몰려 있다.
- 북촌에는 도시한옥들이 즐비하다. 골목골목마다 여가와 현대가 동시에 숨 쉬고 있으며, 단아한 한옥의 고운 찻집과 세련되고 모던한 카페가 친구처럼 나란히 서 있다. 아름다운 돌담과 파도처럼 일렁이듯 보이는 한옥 지붕들이 가장 인상적이다. 북촌은 한때 신분과 계급에 따른 권문세가들의 주거지였으나 지금은 내외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보존되고 복원되고 있는 북촌이 의연하게 느껴진다.

- 돌을 집어 던지면 깨금알같이 오드득 깨어질 듯한 맑은 하늘. 물고기 등같이 푸르다. 높게 뜬 조각구름 떼가 햇볕에 뿌려진 조개껍질같이 유난스럽게도 한 편에 옹졸봉졸 몰려들었다.

-이효석, <산> 중에서

-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안방 쪽에서부터 실내화 끄는 소리가 그의 방 앞을 가로질러 가는가 했더니 곧 이어 수돗물 소리가 들려온다. 사모님이 아침을 지으러 나오셨구나...(중략)...토도독 툭툭 도마소리가 울려온다. 마늘을 찢는 듯한 그 마찰은 딱 끊어지고 뒤이어 물소리..... -윤정모, <님> 중에서

- 바다는 상처투성이였다. 여기저기에 기름 덩어리들이 떠 있었고, 그것들은 잔뜩 끓어 터질 시간만을 기다리는 종기 같아 보였다. 해안에 세워진 거대한 정유 공장 탓이었다. 제 빛깔을 잃은 바다의 피부는 탁하고 거칠었다.

-이승우, <뭇> 중에서

묘사의 방법

- 대상의 세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이 관련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 통일체로 표현한다.(구조나 전체의 원칙)
- 대상의 모양, 색채, 촉감, 향기, 소리, 맛 등 오감을 이용하여 감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추상적인 의미까지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 대상 전체가 아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인상 즉, 지배적 인상(dominant impression)을 중심으로 한다. 지배적 인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드러낸다.

눈 덮인 운주사는 이름 그대로 흰 구름배가 잠시 지상에 정박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막상 운주사를 가까이서 대면하고 보니 마구 웃음이 나왔다. 논밭에 굴러다니던 것을 계곡에 세워둔 석불들은 코빼기가 없어진 놈, 모가지가 날아간 놈, 대갈통이 으깨어지고 입은 비틀어지고 눈은 썩어지고, 하여간 오만 가지 우거지상들을 하고 있었다. 내 슬픔을 달래주고 구원을 약속해 주거나 엄숙하게 숭배를 요구해야 할 부처들이 아주 개판이었다.

마누라와 머리를 다정스럽게 맞대고 있는 석불 입상, 아예 공공연하게 끼고 동침하고 있는 와불, '쫓바우'나 진배 없는 석불들 : 이 음탕하고 신성모독적인 농담과 아무렇게나 만든 코믹터치에서 나는 죽비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너만 못 낫고 괴롭냐. 나는 더 못 나고 더 괴롭다는 듯, 운주사의 석불들은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는 것이었다.

-황지우,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학고재, 1995.





미국 대륙 한가운데쯤 모든 생물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은 곡식이 자라는 밭과 풍요로운 농장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 봄이면 과수원의 푸른 밭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되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소나무를 배경으로 불타듯 단풍이 든 참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가 너울거렸다. 어느 가을 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안개가 내린 언덕 위에서는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조용히 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때때로 눈에 띄었다.

길가에는 월계수, 인동나무, 오리나무, 양치식물 그리고 들꽃이 연중 그 자태를 뽐내며 지나는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나무 열매와 씨앗을 먹고사는 수많은 새가 눈발에 내려앉는 겨울철에도 길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일대는 풍부하고 다양한 새들로 유명했는데, 봄가을에는 이동기를 맞은 철새 무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중략)...최초의 이주자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헛간을 세운 이후 이런 풍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서문

설명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것’ 이
‘무엇’ 인가를 알게 하는 기술 양식”

✓ 설명에 있어 중요한 점 : 수용자과의 원활한 소통
(설명하려는 대상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목적 :

어떤 주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본적인 정보 제공 → 독자의 이해 도모

요령 :

어떻게든 소주제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장들을 이어가는 것!

설명의 방법

: 지정,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분석 등

*지정 : A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형식. 'A는 B이다.'

ex) "문학은 착각이다."

*정의 : 'A는 B이다.' 형식을 갖지만 둘의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함. 즉 피정의항=정의항

ex)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 ✓분류 : 대상을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공통성 있는 것끼리 모으고 갈라 체계화 조직화하는 것
- ✓구분 : 상위 개념을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구분

ex)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은 모두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분류
문학은 형식에 따라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눌 수 있다.

→ 구분

- 우리의 사유는 종종 몸의 움직임과 연관되기도 한다. 가령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는 저절로 걸음이 느려지고, 어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걸음을 빨리빨리 서두르는 식이다. 밀란 쿤데라의 <느림>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웬 사내가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뭔가 행복한 일이 떠올라 회상하고 싶어진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늦춰 기억의 속도에 맞춘다. 반면,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사내는 지금 현재의 시간과 위치로부터 어서 빨리 멀어지고 싶다는 듯,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서둘러 재촉한다.”
-예시, 인용

-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화와 대비되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는 프랑스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연고 서성한...’이라는 서열화로 대학을 나눌 뿐 아니라 ‘인서울, 경기권, 지거국’ 등 지역별로도 대학의 서열을 나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1대학, 2대학...’ 등으로 대학을 나눈다. 그 숫자도 별 의미는 없으며 어느 학교의 어떤 학과가 나에게 잘 맞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제도에서는 좀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경쟁이 심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억압도 크지 않다. 프랑스의 고교졸업생 4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들은 대학의 서열에 상관없이 학문과 자아실현을 위해 진학한다. -비교, 대조

-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광의와 협의로 구별할 수 있다. 광의의 이데올로기는 체계적인 관념의 인도를 받는 모든 종류의 행동 지향적 이론이나 관념 체계에 비추어 정치에 접근하는 모든 시도를 뜻한다. 협의의 이데올로기는 대략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경험과 외부세계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 이론을 포함한다. 이데올로기는 일반적 추상적 용어로 사회 정치를 조직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데올로기는 이 프로그램의 실현에는 투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본다. 이데올로기는 때로 서약을 요구하면서 충실한 지지자를 모으려 한다. 이데올로기는 광범한 대중을 향하며 지식인에게 특별한 지도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을 띤다. -정의
- 나무는 잎의 생명력에 따라 낙엽수와 상록수로 나눌 수 있다. 낙엽수는 겨울이 나 건기에 잎이 떨어져서 이듬해 봄이나 우기에 다시 새잎이 나는 나무이며, 상록수는 일년 내내 잎이 늘 푸른 나무를 말한다. 참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등은 낙엽수이며, 전나무, 소나무, 사철나무 등은 상록수라 할 수 있다. -분류

-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소설 내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주인공 뫼르소는 자신의 삶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방인’이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선고받은 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소설의 제목은 뫼르소가 자신의 삶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걸돌면서 살다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비로서 삶의 의미와 자의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뫼르소에게 남은 삶은 이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승고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과정뿐이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순간, 처음으로 삶에 대한 애정을 절감하는 순간, 뫼르소는 이방인이 아닌 진짜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 -분석

(사물과 현상을 여러 구성요소로 나누어 서술, 각 요소들을 나누어 서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주제를 지향)

➤ 인용, 예시, 비교, 대조, 정의, 분류, 분석 등을 찾아보자.

키치는 독일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싸구려 저급 예술작품을 뜻하는 말이다. 민간 어원에 따르면 패키지 단체여행이 시작된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에 온 단체 관광객들을 위해 상투적으로 제작된 그림들을 키치라고 불렀다 한다. 그들이 여행 기념으로 하고자 했던 값싼 스케치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것이다. 흔히 이 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상투적인 유화나 사진들이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치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며, 나아가서는 미사여구로만 가득 차 있는 서울 지하철 역사의 서정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으로만 채워져 있는 **TV** 드라마 같은 것들이 키치로 분류될 수 있겠다. 아도르노는 키치를 정의 하여, “지난날에는 미였으나 그 대립자의 결여로 인해 미에 대해 모순을 이루게 된 것”이라 했다. 자기 안에 추의 계기를 지니지 않아서 추와의 어떤 긴장도 상실해버린 미, 즉 아름다움이라고 이미 규정된 요소들로만 채워져 있는 예술작품은 더 이상 아름다움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 의심하는 아름다움, 자기다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추와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움만이 키치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키치는 이미 상투화되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말이다.

- 캠프는 키치와는 반대로, 저급한 것을 고급한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계기를 뜻한다. 캠프라는 말 자체는 재미 삼아 연출된 과장된 저급함 같은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만화책을 보며 낄낄대는 피카소, 심각하게 오목을 두는 아인슈타인이나 신명나게 트로트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 칼라스 등을 상상해볼 수 있겠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문제적인 것이 되면서부터는 캠프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 진지한 것으로 고려되게 된다. 의도한 유치함은 고급문화가 지니고 있는 지나친 엘리트주의나 형식주의, 위선 등에 대한 도전과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함 속에도 단순함과 순수함같은 미덕이 있다. 너무 세련되어 오히려 상투적이 되어버린 고급스러운 문화 옆에 이런 단순함을 세워놓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선한 것일 수 있다. 캠프적 감수성과 상상력은 그런 신선함을 향해 나아간다. 통속적이고 저급한 대상으로서의 키치도 캠프적 계기를 통해서라면 참신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캠프적 계기는,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신선함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시대 미의식의 변증법적 행로를 보여준다.

-서영채, <키치와 캠프>, 인문학개념정원, 문학동네, 2013



서사

내가 스물한 살 때 점원으로 있던 문흥서림은, 좋은 책 나온 게 뭐 없느냐고 교수들이 와서 주인에게 굶신거렸던 서점이었다. 그 문흥서림 점원이 되기 전에 나는 대명동의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동아다방에서 멘트도 없고 월급도 없는 DJ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방으로 가는 길에 점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로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 왈, “자네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순발력에 사력을 보탠 나의 응수, “어릴 때부터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이 책방 점원이었습니다!” 나를 한 번 훑어본 주인 왈, “좋아, 해봐. 이 서점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고서점이야.” 주인의 말은 진짜였다.

내가 그 서점에서 일하게 된 지 며칠 만에 주인의 요청으로 내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는 “여기서 착실히 일을 배우게 한 뒤 가게를 내어주면 어떠냐.”고 권했다. 내가 그 서점에서 책만 너무 많이 읽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네는 일은 잘 하는데 책을 너무 많이 봐.”라며 쫓겨나지만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고서 감정의 법통을 이어받았을 텐데.

‘일은 잘하는데, 책을 너무 많이 본다.’는 말은 모순 같지만 주인의 말처럼 나는 아무 모순 없이 책도 많이 읽었고 일도 잘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한 달도 못 채우고 목이 잘렸는데, 그 동안 나는 만화 나부랭이나 소설, 참고서 따위의 그야말로 헌책들만 취급했고 고서에는 손도 못 대보았다.

목이 잘리기 전에 나는 왜 나이 많은 사람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유는 단순명쾌하고 그럴 듯한 것이었다. 첫째, 담배를 피울 줄 아니까 화재가 나기 쉽다는 것, 둘째, 책을 훑쳐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담배를 피울 줄 몰랐고, 책을 훑쳐서 읽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햇수가 더 지나야 했다. 주인의 눈총을 받으며 시 전문지를 읽어댄 탓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다음 해인 스물두 살 때부터 나는 첫 시집에 실을 시들을 신들린 듯이 써대기 시작했다.

· 장정일, <장정일의 독서 일기 1993.1~1994.10>, 범우사, 1995.



서사

✓ 서사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변화, 진행, 인물의 행동이나 사물의 변화 등을 서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정서, 때로는 어떤 이해를 가지게 하려는 진술 방식

- 서사의 발생을 위해서는
 1. 행동의 주체,
 2. 행동의 변화,
 3. 구체적 배경이 필요!



✓ 서사의 3요소

: 시간, 움직임, 의미

➤ 유의점

필자와 독자 모두에게 특정한 의미와 가치, 정서를 지닐 수 있는 사건, 상황, 행동이어야 한다.

무엇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것인가?

-세계관

✓ 서사의 쓰임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 양식(소설, 영화, 드라마 등)

학술적인 글 : 핵심적인 사건 또는 장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

(사회적 이슈가 된 논쟁적인 사건 대상의 논문, 사건의 추이와 변화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실험 보고서 등)

✓ 서사의 방법

필요한 주요 사건의 정리(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 과정)

핵심적인 사건과 부차적인 사건의 구별

주요 사건 배치 확인을 통한 사건의 윤곽 파악

사건의 전개 과정을 단계나 양상으로 구분

초점을 맞출 부분 및 몇 개의 단계로 서술할 것인지 결정

사건과 사건의 인과 관계 의미 파악

사건의 재배치

논증



✓ 논증 : 주장과 정당화 근거로 이루어진 명제들의 집합

- A. 간밤에 친 벼락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백년 된 고목나무가 쓰러졌다.
- B. 운동장에 있는 백년 된 고목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니 간밤에 벼락이 친 것이 틀림없다.

➤ 논증의 목적 : 글쓴이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 그 근거를 밝혀 상대를 설득

논증



➤ 설득력 있는 논증 :

소주제문에 대한 근거 **충분히** 제시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등의 접속 어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문장들을 이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

➤ 명료한 전개+ **적절한** 톤

→ 논리적 설득, **정서적 공감**

사실적 근거 → 주장 뒷받침 : 귀납논증
원칙에 중점을 둔 전제 → 주장 끌어내기 : 연역논증

예시) 사우스포트의 주사바늘 교환 프로그램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약물을 더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약물문제를 심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약물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일주일 평균 약물 투입횟수가 5.7회에서 9.2회로 늘어났다.

위험한 행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사우스포트의 주사바늘 교환 프로그램은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사람들에게 약물을 더 많이 주입하도록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약물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철폐해야 한다.

-조셉 윌리엄스, 그레고리 콜럼 <논증의 탄생>

- 사실 <완득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다. 휴머니즘 성장 영화여서 그렇기도 하고, 다문화라는 테마 때문에도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칫 빠지기 쉬운 대중영화 특유의 상투들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이 영화, 재기발랄하다.
- 줄거리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미 많은 이가 봤을 테니. 따라서 각설하면, 이 영화가 흥미로웠던 건 표적이 사라진 세대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라. 온갖 불만이 가득하지만 완득이는 분노를 표출할 수 없다. 완득이의 착한 품성도 한몫하겠지만,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 어느 곳에서도 표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물론, 영화 시작에서 완득이는 ‘똥주 선생’을 죽여달라고 기도한다. 똥주 선생은 폭력 교사이고 심지어 보급으로 나오는 햇반을 뺏어먹는 악질 중에 순악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만한 선생이 없다. 사실 그는 이 주노동자를 도우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암마, 도완득” 하면서 평온한 일상에 침범해 들어오는 게 언제부턴가는 정겹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이 시대의 이상적 스승 이미지에 가까울 정도다.

- 이번엔 아버지. 대개 질풍노도의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극히 혐오스러워야 한다. 그는 날 억압하고 구속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그런 아버지를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득이 아버지는 아들을 억압한다기보다는, 장애인으로서 오히려 내가 돌봐야 할 존재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아버지도 표적은 될 수 없다.
- 학교에서 잘나가는 녀석들(반장이나 일진)도 마찬가지다. 어지간하면 범생이로 잘나가든 날라리로 잘나가든 한판 붙어볼 만도 한데 딱히 노기가 치밀거나 하질 않는다. 반장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아이 같고 (게다가 사랑스럽고) 일진 녀석은 무섭다기보다는 허세 가득한 찌질이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녀석들을 상대로 액션을 부러봤자 말짱 허사다.
- 그러니 완득이로서는 공허감과 고독감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어디 표출할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1978년의 무기력한 청소년을 다뤘던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교할 만한 구석이 많다. 거기서도 현수(권상우)는 형언할 길 없는 압력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지 않던가. 그런데 1978년의 청소년과 21세기의 청소년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것은 현수에게는 표적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 현수 주변에는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죽여야 할 상징적 아버지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는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권위를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진 녀석들은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처럼 아이들을 괴롭히며 온갖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 압권은 영화 막판 절권도에 각성하고 교실 복도 유리창을 깨부수는 장면이다. 현수는 포효한다. “대한민국 학교 ×까라 그래!”
- 흥미로운 대조점이 지 않은가. 과거의 청(소)년들이 저항할 대상이 있었던 데 반해, 21세기의 <완득이>는 그 과녁을 지우고 있으니 말이다. 혹은 현실에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 그래서 <완득이>가 제시하는 해법은 자못 포스트모던할 수밖에 없다. 장애를 가진 아빠, 말을 더듬는 삼촌, 이주민 출신의 엄마, 옆집의 말 많은 미술가 아저씨, 삼류 무협소설 작가 누나, 똥주 선생 등과 서로 둥글게 손을 잡고 새로운 가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 킥복싱같이 자아실현의 새로운 출구를 찾든가. 그런 까닭에 <완득이>를 보고 나면 묘한 행복감과 더불어 하나의 의문이 따리를 틀게 된다. 정말 우리 시대에 표적이란 없는 걸까.

-김성윤, <분노의 표적 없는 ‘완득이’의 세상>





<완득이> 묘하게 재미있다.

재미의 실체는 무엇일까?

서론-문제제기

표면적으로는 싸움도 많고 부딪침도 많은데 원한도 적도 없다. 표적x

(‘표적 없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 1) 선생님과의 관계
- 2) 아버지와의 관계
- 3) 친구들과의 관계

비슷한 영화들이 있는데. <말죽거리 잔혹사><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과는 어떻게 다를까?

본론-구체적 진술

표적 없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의 가능성

남은 문제는?

결론-강조, 마무리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한 조건

1. 수용 가능한 전제가 필요하다.
2. 전제와 결론은 연관되어야 한다.
3. 전제가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4. 기본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5. 예상되는 반론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